

## <모스크바 및 쏘 루시 총대주교 키릴로스 성하 2019년 성탄절 메시지>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충실한 모든 자녀들을 향한 모스크바 및 쏘 루시\* 총대주교 키릴로스 성하의 메시지*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동슬라브 민족과 그 고대국가의 명칭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모두께 위대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천 년 전 베들레헴의 양치기들과 같이 “지고한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은덕! (루카 2:14)”이라고 경사로이 외치는 천사의 목소리에 기뻐하고 어진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경탄할 만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위안을 발견하고 조물주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만유의 주관자요 강고하신 주 하느님, 영원의 아버지께서 (이사야 9:6) 친히 우리에게 강림하시어 세상에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시편낭송자 다윗 왕이 선포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시편 84:11~12)”라는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이사야 9:6)”,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라는 예언들도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인류는 잃어버린 자기 조물주와의 소통에 애수를 느껴 강박적으로 하느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노력들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을 향하여 들려진 마음과 손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을 인류에게 드러내셨고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하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기나 긴 수천 년이 지나고서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났고, 천상과 지상이 결합되었으며, 아담의 자녀들의 영적 염원이 실현되었습니다.

인간지성이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의 섭리자와 같이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신비와 계시가 그리스도 성탄의 사건에서 단번에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당신의 본성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로 망가진 세상에 강림하시어 양치기와 가축들이 악천후에 몸을 피하는 동굴에서 갓 태어나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천군천사들이 표현하였고, 동방박사들이 예측하였으며, 평범한 양치기들이 증언한 영광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힘찬 소리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불가해한 하느님 지혜의 깊이를 알게 안목을 열어주고, 인간구원에 대한 삼위일체의 은밀한 계획의 동참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바,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 3:16~17)”.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1~2, 5)”.

온순하고 온유한 아기가 누워 계시는 바로 이 구유에서 주 예수님의 지상 십자가 행로가 시작되고 우리 구원의 시점이 위치하므로, 이곳을 향하여 경건한 자세로, 하느님을 경외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절합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부의 갓 탄생하신 성자를 찬양하며, 형언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지력을 능가하는 것을 향유합시다.

다시 거듭해서 우리는 천사의 찬가 “지고한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은덕!”을 반복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 안에 영적 능력이 살아 있으므로 인생사의 혼돈에도, 사회적 격동에도, 정치적 문란과 심지어 무장충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영적 능력으로 지상의 모든 비탄과 불운을 격퇴합니다 (성주교 이냐시오 브란차니노프, 『금욕생활경험』).

하지만 어떻게 혼의 평화로운 상태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대한 영적 은사의 소유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 교부들은 한결 같이 말하길,

인간 안에 그리스도 평화가 작용하는 것은 그가 복음의 계명들 안에 거함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수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교시하시는 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하여 사도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콜로새 3:14~15).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따르고, 가까운 이들에게든 먼 이들에게든 구원에 대하여 증언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분의 위업을 선포하는 (1베드로 2:9) 은덕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고귀한 소명에 합당한 이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동굴에서 이루어진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성탄을 보고서 세상의 허무함을 떨쳐내어“ (그리스도 성탄 기립찬양 제8 콘다키온), 만유의 창조주를 찬양하고서 우리의 사고를 하늘로 올리며, 육화하신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주위에 배려를 필요로 하고, 낙심하거나 삶을 옥죄는 처지에 놓인 이들과 공유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적 삶의 고단한 여정에서 영감을 북돋아 주시어, 앞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신앙이 강화되고, 희망이 고갈되지 않고 사랑이 성장하게 하시고, 찬란한 성탄대축일 축제에 입장하면서 우리가 끊임 없이 세상에 경건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하시며 (1티모테오 3:16), 사람들에게 위안과 그리스도의 축복된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아멘

+ 키릴로스, 모스크바 및 **순** 루시 총대주교

2018/2019 년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 모스크바

(본 총대주교 메시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신학원 남한인 유학생 바오로 최지윤 수도보제에 의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